10.15686/fkl.2024..63.10 OPEN ACCESS

서영해의 설화집 속 번역된 여성 형상
-1900년대 고전서사 번역과의 비교를 통해

황인순
덕성여자대학교 차미리사 교양대학 조교수

목차

1 서론
2 한국 고전 번역에서의 제국주의적-탈제국주의적 시선
3 춘향과 심청, 한국 고전서사 속 기명의 여성 형상들
4 춘향도 심청도 아닌, 한국 고전서사 속 무기명의 여성 형상들
5 결론

본 연구는 2023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서영해의 설화집을 중심으로 하여 1900년대 초 서구 언어로 번역된 고전서사들과의 비교를 수행하고자 한다. 후자를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도착어에 대한 원어민 화자의 관점, 그리고 원전에 대한 원어민 화자-도착어에 대한 외국어 화자의 관점으로 분류한다면, 알렌, 게일 등 대부분 서양 기독교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번역이 전자에 해당하고 서영해의 번역이 후자에 속한다.

서영해의 번역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여행기나 박물관적 관점에 속하지 않으며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번역'이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발견되는 연구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어 번역자들의 탐색 대상인 한국문학 혹은 넓게는 한국을 일종의 영토화된 대상이라 해석할 때, 재현되는 여성의 형상에 주목하는 것은 보다 유의미한 작업이 된다.

고전 번역의 여성 형상을 기명의 여성들과, 그리고 무기명의 여성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서영해는 후자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의 형상을 구현하고 그것을 그가 지향하던 다음 공동체의 가능성으로 기술하려 한다.

국문핵심어: 고전 번역, 서영해, 춘향, 심청, 설화 번역에서의 여성 형상

1 서론

1900년대 초를 중심으로 하는 고전서사 연구에서, 주목하는 변화 중 하나는 외국어로 기술된 고전서사들의 출간이다. 고전서사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번역이나 외국어 기술의 문제가 개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원전에서 시작하여 번역되는 도착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시기의 번역은 크게 일본어와 일본어가 아닌 언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어가 아닌 언어는 주로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서구 언어들로 분류된다. 서구 언어로의 번역과 일본어로의 번역에 다소 다른 방향의 접근을 요하는 것은 도착어의 선택이 담론적 맥락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

이다.[1] 따라서 서구 언어로 번역된 고전서사들을 구분하여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동시대 고전의 일본어 번역 연구에서는 한국(어)-일본(어)의 대립적 구도, 그리고 민족주의-제국주의의 강력한 담론적 구도에 주목하기도 하지만, 서구 언어는 일본어와는 다른 위치를 점유한다. 상대적으로 관찰자적 언어이지만 이들의 번역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적 보편과 계몽주의, 서구중심주의의 특징을 배제할 수는 없다. 물론 서양 언어로의 번역을 단순히 오리엔탈리즘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이라고만 환원할 수도 없다. 주로 서양 선교사로 대변되는 번역자들이지만 대상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성찰 없이는 낯선 나라의 문학 텍스트를 자신의 언어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기에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개별의 번역에는 개별의 번역들이 가지게 되는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고전서사의 번역은 원전을 상정하기 어렵고, 그 구술성 때문에 변개의 경계를 지정하기 어려워서 개별의 번역 맥락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시각과 개별 번역의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드물게, 서구 언어로 번역했지만, 그 번역의 주체가 한국어 화자인 경우도 있다. 서영해의『거울, 불행의 원인Miroir, Cause de Malheur!』가 그것인데, 한국어 화자인 서영해가 1934년 프랑스에서 고전 설화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본고에서는 이 두 번역의 맥락이 대립된다는 데에 주목해 보았다. 외국어로 번역된 고전서사 연구는 일반적으로 외국어 원어민 화자가 한국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한 대상들을 그 대상으로 하곤 했다. 그에 해당되는 텍스트들이 양적으로 많기에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외국어

1 외국어 번역 혹은 기술 설화집과 관련하여, 우선 한글과 한문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기술된 설화집을 외국어 설화집의 범주로 포괄하고 이를 일본어 설화와 영어를 포함한 서구 언어로 구획하고자 했다. 일본어는 '교화적 언어'이면서 '침투한 언어'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한국 설화)의 대립 안에서 연구되곤 하지만, 영어를 포함한 서구 언어는 일본어와 비교했을 때, 관찰자적 언어로, 의도가 강조되는 윤색과 제국주의적 관점의 해석이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내용은 황인순,「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 방법론 구축」,『리터러시 연구』제10권 4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665-702쪽.

번역 고전이라는 분류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관점과 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는 서영해의 번역을 외국어 원어민 화자의 번역과 대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번역에 나타나는 여성 형상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전자가 선택한 여성의 형상들이 주로 춘향과 심청으로 대변되는 한국적 전형이며 서영해의 번역에서는 춘향도 심청도 아닌 여성들이 적지 않게 번역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국주의적 시선의 남성중심성과 탈제국주의적 시선을 비교하여 각각의 텍스트들에서 여성 형상들이 총체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한국 고전 번역에서의 제국주의적-탈제국주의적 시선

번역의 구조를 내용과 표현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rac{\text{내용 a(한국서사)}}{\text{표현(한국어)}} \rightarrow \frac{\text{내용 a′(한국서사)}}{\text{표현(외국어)}}$$

이 시기 서구 원어민 화자들에 의한 고전 번역들은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도착어에 대한 원어민 화자의 관점에서 수행된 것이다. 반면 서영해의 번역은 원전에 대한 원어민 화자-도착어에 대한 외국어 화자의 관점으로 수행된 것이다.

서구어 번역은 그 관점의 측면과 가치의 측면에서 종종 논의된다. 가치의 측면은 이것이 한국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논의될 만한 의의가 있는지, 혹은 고전의 이본으로 기능하는지의 문제이다. 관점의 측면이란 번역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나, 일본 혹은 중국의 열화된 버전으로 인식하거나, 야만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등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제국주의적 침탈의 도구로 환원하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서구 선교사들의 한국행은 의도적인 '접촉'[2]이었겠지만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이루어

2 본고에서는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이 『제국의 시선』에서 기술한 관점들을

진 일견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도 역시 이러한 관점을 수용한다. 다만, 서구어라는 번역의 도구에 함축되어 비가시화된 제국주의적 관점을 좀 더 짚어볼 필요는 있다.

알렌, 게일, 헐버트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학자이자 선교사들은 다양한 저서를 기술하고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그들을 일종의 한국학자들이라 묶을 수 있다면, 그들의 저서와 번역은 한국학의 선구자라 여겨지는 프랑스 학자 모리스 쿠랑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다. 쿠랑의 대표적인 저술인『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eénne』는 백과사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한국학 서적이다. 이것은 한국의 전반적인 면모를 관찰하고, 동시에 분류하는 서양 학자의 시선 하에 구성된다.[3] 이 저서는 백과사전적 구성을 빌린 관찰과 탐색의 기록으로, 일종의 관념적 여행기이다. 한국이라는 대상을 여행하고 그 요소들을 구석구석 탐색하며 미지의 영토에 대한 해석을 기술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분류가 프랫이 지적했던 것처럼 "유럽적 체계의 분류와 명칭" 하에 수행되었다는 점이다.[4] 실제로,

---

참고하여 논의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프랫은 여행서사에서 제국주의적 관점이 재현되는 과정들에 주목하여 이를 기술한다. 접촉이라는 용어 역시 프랫이 제안한 '접촉지대'라는 표현에서 빌려온 것으로, 이를 지배와 복종, 식민주의와 노예제도 등과 같이 극도로 비대칭적인 관계 혹은 그 결과 속에서 이종문화들이 만나고 부딪히고 싸우는 사회적 공간(32쪽)이라 하였다. 이 개념은 식민자와 피식민자, 여행하는 사람과 여행되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서로 무관하고 분리된 상태로 다루는 대신, 비대칭적 권력 관계 안에서 함께 등장하여 상호 관계에 놓여있는 것(35쪽)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프랫은 반정복(anit-comquest)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은 유럽의 헤게모니를 강력히 지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결백을 지키고 싶었던 유럽의 부르주아 주체들이 활용한 재현 전략을 가리키는 말이며, 그 중심인물로 보는-남자(seeing-man)라는 개념을 함께 제안한다. 이것을 반정복의 주체이자 유럽의 풍경담론을 구축한 백인 남성 주체에 대한 적대적 의미라고 설명한다.(36쪽) 서구 유럽 혹은 북미의 선교사들이 수행한 일련의 번역들은 접촉에 의한 반정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형적으로 보는-남자에 의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를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2015.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황인순,「〈한국서지〉 담화 구조와 프레임 연구」,『韓國古典硏究』제53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61-396쪽.

4 프랫의 논의에서 린네의『자연의 체계』는 박물학적 탐색의 시선과 여행기의 시선을 결합하는 것이다. 기존의 여행기나 정복자의 이미지가 영웅적인 형상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쿠랑은 한국이나 한국문학에 대해서 그 고유한 정체성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토대로 한국을 이해하려는 시선 때문에, 서구중심주의, 중국중심주의가 이중적으로 구획된 한국 인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5]

그런데 쿠랑이 한국의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했다면, 그것은 서구적 의미의 소설 개념 하에서이다. 즉 한국의 소설과 문학이 "유럽적 체계" 내에 적절히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적 의미에서의 소설은 기술과 구술의 대립하에서 기술적인, 그리고 공동 작가와 개별 작가의 개념에서 보다 개별 작가적인 영역 안에 위치한다. 그러나 한국의 소설은 구술과 기술이 뒤섞이며, 따라서 공동 작가와 개별 작가가 뒤섞이는 개별의 장르이다. 그러므로 소설의 '번역어'는 프랑스어로는 roman이 맞겠지만, 서구적인 '의미'의 roman과 『심청전』 혹은 『춘향전』이 표상하는 roman은 다른 개념이다. 그렇기에 쿠랑의 분류에서 한국적 소설의 일부는 삭제되거나 간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설답지 않은 요소로 평가된다. 이것은 일본적 제국주의의 영토화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보는 남자'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함축한다.

따라서 쿠랑 이후의 알렌, 게일 등의 초기 한국학 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한계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물론 이에 대해 초기 한국학의 태동에서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다는 평가와 혹은 제국주의적 시선의 전형이라는 평가가 대비된다. 전자

면, 박물학은 대상을 전혀 번형시키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연을 자연의 체계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기능한다.(84쪽) 그러나 이러한 체계화와 명명은 유럽의 부르주아 주체이자 제국적인 주체에 의해 수행되며(85쪽) 결백함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정복과 소유의 이미지를 구체화(131쪽)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영웅적 성격을 명시화하지 않으나 남성적 시선 하에 있음을 강조한다.
메리 루이스 프랫, 앞의 책.

5 "소설의 대부분은 한글로 쓰여 있으며 저자명을 밝히는 법이 없고 연대표시가 있는 것도 드물다. 일부는 중국 것을 번역했거나 모방한 것이고 일부는 창작인데, 중국과 한국 역사상 알려진 사건을 담고 있거나, 역사에 근거를 두지 않고 상상력에 의한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상상력에 의한 작품 가운데도 대개의 경우 그 줄거리가 중국을 담고 있어 한국인들 정신에 미친 이들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라 하겠다."라는 쿠랑의 서술을 확인할 수 있다.
황인순, 앞의 글, 2014, 382쪽 재인용.

의 예를 들면 초기와 같은 문학 부재의 시각이 점점 사라지고, 이후의 선교사들은 다른 관점에서 한국문학을 이해했다고 지적하는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6] 또한 게일이 한국문학에서 중국문학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술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독자성을 존중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7] 또한 헐버트처럼 독자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한국문학을 이해한 연구자들의 면모를 강조하기도 한다.[8]

반면 이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연구자들도 있다.[9] "코리안 리포지터리가 미국 감리교 선교사 프랭클린 올링거가 주도하고 서양 선교사들이 합류하여 1892년에 간행된 최초의 영문 월간지"라고 기술하면서도 이 잡지가 "조선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권력을 생산"하며 "한국학을 개척하고 한국의 자원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정복하려는 서양학자, 정치가, 외교관, 군사 전략가들의 필독서"라고 비판하고 "조선 문명이 병들고 정체되었기에 자율적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선배 선교사들의 입장"을 답습하여 "일본제국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오용"되었다고 인식하는 시선도 존재하는 것이다.[10]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중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든, 서양 선교사들의 관점이 계몽적이며 서구중심적이고, 조선을 방문한 관찰자이자 외부인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들은 실제의 여행기를 서술하기도 하고, 이처럼 문학 번역서를 서술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어디에 속하든 넓은 의미에서 '여행기'이며 박물관적 관점의 기술이다. 따라서 이들의 번역에서 제국주의적 관점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것은 지배적이고도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배태하여 영토화된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서영해의 쓰기는 결코 '여행기'일 수는 없다. 물론 한국인이 한국의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옮긴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탈제국주의나 반

6 이상현,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현장과 개신교선교사」, 『민족문학사연구』 제7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103쪽.

7 이진숙 외 역주, 『서양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2』, 박문사, 2017, 13-16쪽.

8 위의 책, 100-156쪽.

9 육영수, 『근대한국학의 뿌리와 갈래』, 돌베개, 2024, 55-104쪽.

10 위의 책, 55-73쪽.

제국주의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양 선교사들의 번역이 이처럼 넓은 의미에서 여행기일 수 있다면, 적어도 서영해에게 한국의 이야기들은 탐색과 관찰의 대상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번역의 관점과 방향은 대칭적이다. 특히 서영해가 번역을 수행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 번역의 탈제국적 속성은 어렵지 않게 유추된다. 저자 서영해는 1919년 3·1 운동 이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프랑스로 유학하여 임시 정부의 외교 활동을 수행하였다.[11] 이 과정에서 기술된 『거울, 불행의 원인』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탈제국과 탈식민의 담론 아래 기술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본고에서 서영해의 번역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행기나 박물관적 관점을 배제하며 제국주의나 식민주의를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번역'이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발견되는 연구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어 번역자들의 탐색대상인 한국문학 혹은 넓게는 한국을 일종의 영토화된 대상이라 해석할 때, 재현되는 여성의 형상에 주목하는 것은 보다 유의미한 작업이 된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도착어에 대한 원어민 화자라는 분류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문학 번역을 두고, 원전에 대한 원어민 화자-도착어에 대한 외국어 화자라는 분류로 서영해의 설화집 번역을 두어 대조한다.

흥미로운 것은 서영해를 제외한 많은 번역들이 춘향과 심청 등 소설을 중심으로 하는 기명의 여성 인물들을 선택하였고, 서영해의 번역은 설화에서 무기명의 여성 인물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겠다. 특히 서영해는 설화집의 서문에서 설화의 구술성과 변전을 명시하며 "어린 시절의 아련한 기억을 끌어내어 이 설화집을 구성한 것이다. "구성"이라고 말한 것은 이야기들이 (기존) 텍스트를 전혀 가지고 있지

11 1902년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1920년에 프랑스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1929년 파리 고등언론학교를 졸업하고 자신의 숙소에 고려통신사(Agence Korea)를 설립하였다. 이후 『어느 한국인의 삶』(1929), 『거울, 불행의 원인』(1934) 등을 프랑스어로 출간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한 언론 활동을 수행하였다.
정상천,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산지니, 2019, 7쪽.

않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특정) 텍스트를 따르지는 않았다."[12]고 말한다. 그러나 게일과 헐버트 등이 한국의 속담 혹은 민담을 수집하기도 하고, 헐버트나 그리피스가 우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담적 이야기들을 기술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한국문학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많은 번역본들이 『춘향전』 혹은 『심청전』을 위시한 소설들을 번역했다면, 이것은 소설/판소리/설화라는 장르 규정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번역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중성을 갖춘 대상들을 번역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서구권 문학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문학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편들을 선택하여 번역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서구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번역자들이 제국주의적 번역을 시도했기에 그것이 텍스트의 한계라는 지적이 아니다. 번역의 관점과 시선은 그것이 무엇이든 개별적 특징이며 한계나 단점 등의 단선적 해석은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주목하지 못했던 서영해의 번역이 1900년대 고전서사 번역에 존재함을 다시 알리고, 해당 번역서의 구별되는 의미를 당대의 다른 번역 맥락과 함께 고려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적 여행기를 '보는 남자'의 남성적 시선으로 이해한 프랫의 논의에 기반하여, 영토화된 대상과 시선, 여성 형상의 재현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 춘향과 심청, 한국 고전서사 속 기명의 여성 형상들

고전 번역에서 춘향과 심청은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자주 선택되는 한국 여성의 전형이다. 번역뿐 아니라 고전서사 연구 영역에서 혹은 한국문화 내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다. 다만 이를 고려한다면 서영해의 번역에서 춘향과 심청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으며, 서구어 원어민 화자의 번역에서 좀 더 강조된 편이다. 실제로, 춘향과 심청의 번역 양상을 다룬 고전서사 번역 선행연구는 적지 않으므

12 "C'est en fouillant les souvenirs lointains de ma tendre enfance, en effet, que j'ai composé le présent recueil. Je dis bien《composé》, car je ne me suis servi d'aucun texte, pour la bonne raison qu'ils n'en ont point."
서영해, *Miroir, cause de malheur!*, 새문사, 1977, 9쪽.

로 기존의 논의를 점검하고 요약하여 서영해의 번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만일 춘향과 심청이 어떤 여성인가? 라고 묻는다면 쉽게는 기생과 효녀라고 답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생과 효녀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번역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13] 따라서 이들은 정체성의 간략한 요약만으로도 완전한 번역의 불가능성을 배태하며 오리엔탈리즘적 호기심을 끌어내기도 쉽다. 우선 본고에서 참고할 춘향의 번역 목록은 다음과 같다. 1950년대 이전까지의 번역 중 선택하였다.[14]

저자	번역 제목	연도	언어	원전(추정)
Allen, H.N.M.D.	Chun yang (Korean Tales)	1889	영어	경판본 춘향전
Rosny J.H./홍종우	Printemps parfumé	1892	프랑스어	
Gale, James Scarth	The story of Choonyang (The Korea Magazine)	1917-8 (연재)	영어	옥중화
Urquhart, Edward.J.	The frangrance of spring	1929	영어	
서영해	없음			

13 이것은 춘향과 심청이 단순히 기생과 효녀로 설명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텍스트의 맥락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으로 캐리커쳐화 되기 쉽다는 의미이다.

14 1900년대 외국어 번역서들은 아래 제시하는 목록보다 광범위하다. 연구자의 기존 논의에서도 리델, 그리피스, 헐버트 등의 번역서들을 아울러 다룬 바 있다. 그리피스나 헐버트 등의 번역은 민담류의 번역을 포함한다. 그리피스나 헐버트의 번역은 그 개작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원전이 되는 고전서사의 정체성을 규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우화적이며 동화적인 개작의 방향성을 보이기에 차이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리델의 번역은 민담류를 다수 수재하여 언어와 번역 내용의 공통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영해의 번역과 비교할 만하지만, 이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앞선 번역서들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황인순, 「1900년대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지형도 연구-다시쓰기를 통해 번역된 한국」, 『韓國古典硏究』 제61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275-324쪽.

이를 위해 각각의 번역 맥락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렌의 번역은 원본을 추측할 수 있으나 요약적으로 변개된 번역이다.[15] 게일의 번역 역시 유사하다.[16] 어퀴트의 번역 역시 참고할 수 있는데, 게일의 춘향을 읽고 쓴 극시라는 추측[17]을 반영한다면, 번역의 재번역이자 장르적 변형이다. 마지막으로 홍종우의 번역은 홍종우가 저자 로니를 도와 춘향을 번역한 것으로 원전은 추정할 수 없고, 원전에 대한 원어민 화자인 홍종우와 외국어 화자인 로니의 번역의 경계가 어떻게 분절되었는지도 추측하기 어렵다. 또한 그 개작의 정도도 큰 편에 속한다. 따라서 이들 번역은 사실상 서로 다른 번역의 맥락을 가진 개별의 번역으로 그 공통점을 찾는다면 도착어가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가 개입하여 주된 번역을 수행했다는 정도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견지하는 일종의 친-제국주의적/식민주의적 번역 태도는 텍스트를 거쳐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면 번역된 춘향과 심청에서 상대적으로 무엇이 강조되고 삭제되었는지

---

15 알렌의 번역은 그의 저서『한국설화Korean Tales』에 Chun yang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The faithful dancing-girl wife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영어로 기술된 고전서사 중 가장 잘 알려진 본 중 하나로 판소리 본을 번역한 것이나 짧은 분량으로 개작했다. 서혜은은 대부분의 번역이 경판본을 참조한 것으로 추정했다.
서혜은,「알렌의 경판본 소설의 번안 양상과 그 독자의식」,『한국학논집』86,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102-104쪽.

16 반면 게일의 번역은 'The story of Choonyang'이라는 제목으로 1913년 완성되었으나 1917년 9월부터 1918년 7월까지 Korea Magazine에 연재되었다고 알려진다. 권순긍·한재표·이상현의 연구에서는 해당 문서를 캐나다 토론토대에 있는 게일 문서고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최진실은 해당 번역본이 알렌과 달리 이해조의『옥중화』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상현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권순긍·한재표·이상현,「『게일 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고소설연구』제30호, 한국고소설학회, 2010, 423쪽; 이상현,「〈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게일(James Scarth Gale) 〈춘향전〉 영역본(1917) 출현과 그 의미-」,『고소설연구』제30호, 한국고소설학회, 2010, 384-386쪽; 최진실,「개화기 선교사 게일의『춘향전』재번역 이유와 특성: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번역학연구』제23권 3호, 한국번역학회, 2022, 18-19쪽.

17 장정아 외 역주,『번안소설 1: 춘향전』, 박문사, 2017, 136쪽. (게일의 번역본과의 자세한 차이는 해당 책 139-140쪽 참조)

살펴본다. 알렌과 게일 번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되는 것이 춘향의 신분이다. 최진실의 연구는 알렌의 번역이 춘향이 결국 '기생' 신분임을 강조하는 반면, 게일의 번역은 춘향이 '양반가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알렌이 경판본을, 게일이 『옥중화』를 원본으로 선택한 것을 그 이유로 설명하면서 경판본을 중심으로 초기의 『춘향전』이 춘향 신분의 천함을 강조하는 반면, 후기로 갈수록 신분이 격상된다고 이해한다.[18] 아래에서 두 번역을 살펴보면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알렌의 경우에는, 춘향의 탄생과 소개로 시작하지 않고 몽룡의 소개로 시작된다는 점도 게일과 다르다.

> (알렌) 아버지는 몽룡의 최근 만남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몽룡은 아버지의 관헌에 보관된 지역 기적에서 춘향의 이름을 지웠다. 춘향이 자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기생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예전처럼, 매일 아침마다 효성스런 아들은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 몽룡은 매일 밤 방을 비워두고 자신의 아내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이었다.[19]
>
> (게일) 그녀는 비록 기생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양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일곱 살 때부터 한문을 배웠다. 춘향은 뿐만 아니라 바느질, 자수, 음

---

18 최진실은 "정하영(2005)에 따르면 후기 이본 계열로 갈수록 춘향의 양반 신분 이동 시기가 빨라지거나 아예 양반 서녀로 태어난다고 서술하는데, 『옥중화』에서는 춘향이 처음부터 양반 서녀로 태어나며 게일은 번역에서 이러한 춘향의 양반 신분과 고결한 인격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정하영, 『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5, 71쪽; 최진실, 앞의 글, 23-25쪽에서 재인용.

19 The father did not know of his son's recent alliance, though the young man honestly went and removed Chun Yang's name from the list of the district gee sang, kept in his father's office; for, now that she was a married woman, she need no longer go out with the dancing-girls. Every morning, as before, the dutiful son presented himself before his father, with respectful inquiries after his health, and his rest the preceding night. But, never-theless, each night the young man's apartments were de-serted, while he spent the time in the house of his wife.
Allen, H.N.M.D, Korean Tales, London: G.P. Putnam's Sons, 1889, p.110.

악에서도 뛰어났다. 그녀는 외부인의 손길에서 철저히 보호받았으며, 보석처럼 흠 없이 자랐다.[20]

기생인 춘향의 신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과 정절을 지키는 춘향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번역서사에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강조되는 지점이 미묘하게 다르다. 신분이 구조적 모순이나 질곡으로 읽히기보다는 로맨스의 장애물로 구현되는 경향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춘향의 결연과 신분을 연결하여 갈등을 만드는 구조는 다양한 이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 한국서사의 특질이지만, 번역서사에서는 한 인간으로서 춘향의 극복과 변화에 집중하기보다 상대적으로 '흥미로운 신분'을 가진 한국의 여성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dancing girl 혹은 danseuse 등으로 번역되는 기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은 완전한 번역어를 찾을 수 없는 고유성을 배태하는데, 이에 대한 비원어민 화자들의 호기심이 그 선택과 기술에 기여했다고 보았다. 일부의 번역에서는 춘향을 양반의 딸로 표현하지만, 아버지의 신분과는 별개로 '기생'의 딸로 표현하기도 한다. 신분 차이나 인식을 토대로 이도령과의 결연에 있어 결연 장애의 강도가 달라지고 그 결연의 양상 역시 다르게 개작되는 것이다. 즉, 번역된 고전서사에서 춘향은 아름다운 여성의 표상이자 성애적 대상이며, 로맨스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보다 강해진다.

프랑스어판 『춘향(향기로운 봄)Printemps parfumé』은 서구어 번역의 중개적 위치를 점유하므로 참고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자명이 로니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사실상 한국어를 하지 못했으며 홍종우가 기메 박물관에 머물면서 이들을 도와 번역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21] 그러므로 서양적 시선에 의

20 Although the daughter of a dancing-girl, yet, because her father was of the gentry class, she was taught Chinese from her seventh year. In this she greatly excelled, as also in sewing, embroidery and in music. She was kept pure from every touch of the stranger, and grew flawless as the jewel.
The Korea Magazine NO. 9, 1917.

21 역자인 로니(J.-H. Rosny)는 프랑스 소설가인 형 Joseph Henri Honoré Boex와 동생 Séraphin Justin François Boex가 1887년부터 1908년 사이 활동하면서 함께 사용한 필

해 기술되었지만, 이중 번역의 과정에서 내부자의 시선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번역의 특징으로는 춘향의 신분이 평민의 딸로 기술되는 것, 여장 화소가 주요하게 등장하는 점, 방자의 역할이 커지는 것, 그리고 노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지적된다.[22] 이것은 로맨스의 장애를 변형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맨스의 개연을 만드는 개작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춘향을 매우 고결하고 덕성을 지닌 인물로 윤색하면서 프랑스 문단 내의 오랜 전통 및 번역 당시 19세기 말의 문단 분위기에 부합하고자 했다는 지적은 흥미롭다.[23] 이야기의 변개 양상이 다르지만, 주체로서의 춘향이 아니라, 프랑스 문단에, 한국이라는 미지의 혹은 미개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한 얼굴로 춘향을 활용했다고 본다면 앞선 번역들과 유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서영해의 경우 이와는 달리 춘향을 수록하지 않았다. 서영해가 춘향을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춘향에 관한 한 서영해의 유표성은 그 비-선택에 기인한다. 물론 춘향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기 때문에 춘향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졌다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서영해가 구현하고자 하는 여성 형상이 춘향과는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정한다.[24]

명이라고 한다.
장정아, 「외국문학텍스트로서 고소설 번역본 연구(I)-불역본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에 나타나는 완벽한 '춘향'의 형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48호, 열상고전연구회, 2015, 404쪽.

22 장정아 외 역주, 『번안소설 1: 춘향전』, 박문사, 2017, 11쪽.

23 장정아, 앞의 글, 2015, 409쪽.

24 다만 「홍련」이라는 제목의 기생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아래는 그 일부분이다.
하지만 그는 평안도의 유명한 기생인 홍련을 생각했다. 홍련의 미모와 총명함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온 나라의 젊은 양반들을 모두 매혹시켰고, 그녀와 잠깐의 만남으로도 어마어마한 부를 탕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유혹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나라의 도덕적 분위기를 정화하기 위해, 이 여인을 사회에서 몰아낼 것이다" Cependant il songeait à cette célèbre danseuse de Piung-An, Nénuphar-Rouge, dont la beauté et l'intelligence étaient universellement connues. Elle attirait de quatre coins du pays toute la jeunesse aisée, et d'immenses richesses étaient en glouties par ses caprices. -《Cette danseuse, pensa-t-il, non seulement elle n'arrivera pas à me débaucher, mais encore je tacherai de la supprimer de cette Société afin d'assainir l'atmosphère+morale du pays.

심청 역시 춘향만큼이나 자주 선택된 여성 형상이다. 살펴볼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저자	번역 제목	연도	언어	원전(추정)
Allen, H.N.M.D.	Sim Chung (Korean Tales)	1889	영어	경판본
Rosny J.H. /홍종우	Le bois sec refleuri	1895	프랑스어	윤색이 많은 편
Gale, James Scarth	The story of Sim Chung (미간행 원고)	1919	영어	경판20장본 원전 추정 (송동본)
서영해	Sim-Tchum(Miroir, Cause de Malheur)	1934	프랑스어	

알렌의 심청 역시 그의 저서『한국설화』에 Sim Chung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역시 경판본을 기반으로 수행된 번역[25]이라 볼 수 있다면, 경판본 심청이 "몰락한 사대부의 입장에서 출세와 가문의 번영이라는 꿈을 실현시키려고 한 지향"을 가진다는 지적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판본의 '선택'이 경판본이 표상하는 의미에 동의하는 알렌의 심청 '해석'이라고 이해해 보는 것이다.[26] 반면 게일의 심청 영역본은 춘향처럼 출판되지 못했다. 이 저술은 춘향과는 달리 연재되거나 공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게일 문서』라는 장서로 묶

서영해, 앞의 책, 26쪽.

25 이와 관련하여, 심봉사의 이름, 심봉사의 안맹시기, 노승의 예언 장면, 심청 매신 전 득몽 장면, 용궁에서 심청과 심봉사의 전생 이력담 등이 경판본 계열의 측징이라고 지적한다. 이상현,「묻혀진〈심청전〉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심청전〉번역본의 연대기」,『고소설연구』제32호, 한국고소설학회, 2011, 417-418쪽.

26 물론 알렌이 경판본을 선택한 이유를 가장 대중적이고 접근이 쉬웠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이를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렌의『한국설화』는 요약적 번역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러므로 번역 과정에서 역자가 그 변개의 정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판본의 의미구조가 번역 맥락에서 크게 손실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면, 그것은 적어도 일정 정도 이상의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여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송동본을 기반으로 번역했다고 추정한다.[27]

홍종우 역시 심청을 모티프로 하는『다시 꽃 핀 고목Le bois sec refleuri』를 출간한다. 이 역시 로니와의 협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춘향의 번역서술과 비교하여 이 저술은 심청을 훨씬 많이 개작한다.[28] 따라서 심청을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변개된 가문소설, 혹은 영웅소설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심청'은 주인공의 이름으로 직접 명명되며, 전체 서사구조가 전면적으로 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소설의 가장 주된 서사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29] 그렇다면 그러한 개작은 앞선 알렌의 번역처럼 사대부적 가치의 재건이라는 의미망과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심청의 효가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로 표상되는 가문을 향하는 것이라 답할 수 있다. 심청은 '아버지의 딸'이며 구원할 만한 아버지라는 함축 아래에서 '양반가의 여식'이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것은 후기의 춘향이 양반가 아버지를 강조하는 것과는 같지만 다르다.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적 차이가 큰 것으로 번역될 때 그것은 결연의 장애로 작동하며, 그 차이가 줄어들 때에는 이몽룡이 수행하는 결연의 적극성 등이 강조된다. 즉, 번역서사에서 춘향의 신분은 반-양반으로 결연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며 서사의 최종적 지향은 결연이다. 반면 심청은 완전한 양반으로 사대부 집안의 신실함을 교육받았지만 남성이 아니기에 제한된 여성으로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체이다. 따라서 심청의 신분은 스스로를 희생하는 당위와 그 당위가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당위를 좀 더 부여한다.

서영해의 심청 역시 아주 다르지는 않다. 다만, 서영해의 번역은 몇 가지 측면에서 알렌, 게일의 번역과 구별된다. 특히 심청이 스스로 몸을 팔아 제물이 되

27 권순긍·한재표·이상현, 앞의 글, 2010, 430쪽.

28 전체가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별로 특정한 한국 고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청과 다양한 고전소설의 화소들이 유기적으로 뒤섞여 하나의 소설로 완결된다. 그러나 순현이라는 주인공이 왕에 의해 지위를 잃고 그 지위를 복권하는 과정이 주된 서사로, 심청은 순현과 왕을 연결하는 역할로 기능한다. 가문을 살리고, 결국은 충신을 왕에게 데려가 공동체를 살리는 과정에서의 신실한 '딸'인 것이다.

29 황인순,「근대 프랑스어 설화집 기술 비교 연구-'심청'의 번역과 개작을 중심으로」,『한국고전연구』제42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11-312쪽.

는 부분과 용궁행과 관련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심청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상인들의 제물이 되어 이를 가능하게 한다. 게일의 번역에서는 상인들이 "바다의 악령(evil) 때문에 곤경에 빠져 배가 이 지역을 지나지 못"했다고 하고, 알렌의 번역에서는 "남경 선인이 급류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기술한다. 반면 서영해는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 안에서도 이를 부연하는데, "중국 거상이 끔찍한 방식이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녀를 바친다"라고 쓴다.

또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용궁의 표상이다. 물론 판소리계 (소설)을 저본으로 삼을만큼 원전을 상정하고 번역되는 게일과 알렌의 번역은 분량적으로도 자세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청이 몸을 던진 후 이동하게 되는 용궁에 대한 묘사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게일의 번역에서 용왕(King of the sea)은 하늘의 뜻을 받아 심청을 돌본 후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조력자이며 알렌에서도 역시 용왕(The Dragon king)의 역할과 용궁의 기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영해는 심청이 "연꽃 속에 떨어져 목숨을 건진 후 바다에 피어 궁으로 돌아왔다"라고 기술하며 용궁 부분을 삭제한다.[30] 그렇다고 한다면 서영해의 심청은, 재생의 환상성을 소거한 후 희생했지만 다행스럽게 목숨을 건져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는 측면이 좀 더 강조된다.

이것은 심청이 표상하는 재생의 판타지와 이것을 위해 설정된 인신공희에 대한 서영해의 설명인 셈이다. 다시 말해 인신공희라는 극적 상황을 극복한 심청이 효를 수행하고, 재생의 가능성을 표상하는 용궁을 통해 복을 이루게 되었는데, 극단적인 요소를 삭제하거나 윤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청의 도덕적 딜레마가 이를 둘러싼 시선들의 조율과 공감화에 의해서 융해되었으며 이것이 기능하기 위해 주변인들의 동정과 용인, 남경 상인들의 이중적 배려 등 공동체적 용인과 수용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31] 흥미로운 것은,

---

30 흥미로운 것은 홍종우의 번역인데, 이 부분의 번역에서는 알렌, 게일보다는 서영해의 번역과 더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홍종우는 "야만적인 방법이지만 한국의 상인(marchands coreens)이 황해의 유속이 너무 빨라 처녀를 산다"라고 직설한다. 홍종우는 심청이 "우연히 바다거북에 부딪혀 이것을 타고 물위로 올라왔다"라고 수정한다.

31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제35호, 한국고소설학회, 2013, 73-92쪽.

이러한 요소들이 서영해의 심청에 모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청의 효로 포장된 희생적 행위는 기존의 한국서사보다 효의 한국적 고유성을 덜 강조하고 희생과 구원의 보편을 강조하는 방향을 가지게 된다.

4 춘향도 심청도 아닌, 한국 고전서사 속 무기명의 여성 형상들

알렌의『한국 설화』에서 춘향과 심청을 제외한 여성 인물은 확인되지 않고, 게일 역시 유사하다. 그리피스와 헐버트 역시 민담적 소재들을 일부 번역하였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화적 개작이다. 따라서 춘향도 아니고 심청도 아닌 여성 형상들이 나오는 텍스트들은 그리 많지 않다. 원어민 화자-도착어에 대한 외국어 화자인 홍종우 역시 춘향과 심청 중심으로 번역하였으나 저자 서영해는 춘향도 심청도 아닌 무기명의 여성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서구어 번역과 비교할 때 의미 있는 차이이다. 실제로 서영해의 설화집은 참고한 원천을 어느 만큼은 추론할 수 있으나, 하나의 원본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다시쓰기이다.[32] 그러나 설화를 민중적 이야기로 이해한다는 일관성이 있기에, 민담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여성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며, 번역자로서의 서영해의 지향과 시선에 기반하여 여성 형상들이 재현된다. 아래 표는 서영해의 설화집을 중심으로 여성 형상이 의미 있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에 표시한 것이다. 사실상 모든 이야기에서 여성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주요 인물이 여성인 이야기를 굳이 꼽는다면 이와 같다.

	제목	여성 등장	여성 주인공 특징
1	거울, 불행의 원인 Miroir, Cause de Malheur!	O	부인
2	윤회 이야기Yun-Whai		

32 『청구야담』의 구조와 유사한 몇몇 이야기가 있어, 이것이 서영해가 참조한 문헌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청구야담』등 문헌에서는 기명의 남성 이야기가 많지만 민담류 역시 적극적으로 수재한 것을 보면 다른 원천을 함께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3	심청Sim-Tchum	O	심청
4	홍련Nénuphar-Rouge	O	기생
5	소중한 독약Poison précieux	O	오빠대신 희생한 동생
6	절개없는 여자Femme infidèle	O	절개없는 여자
7	초상 치른 고양이Le chat en deuil		
8	기발한 거짓말Un ingénieux mensonge		
9	상가승무노인곡 Sanga-Singmou-Loïnkoc	O	머리깎은 며느리
10	수숫대가 빨간 이유 Les taches du sorgho	O	호랑이에 위협당한 엄마와 딸
11	김기수Kim kisou		
12	흥부놀부Hunghou-Norbou		
13	천안 삼거리의 능수버들Les saules pleurers du carrefour Tchun-Ansan-Gry	O	결혼할 신부
14	마법의 구슬La bille magique		
15	잃어버린(도둑맞은) 종이를 어떻게 찾았을까Comment on trouve les papiers perdus(volés)		
16	기적의 종La cloche miraculeuse	O	에밀레종 설화
17	여우와 호랑이Le renard et le tigre		
18	기이한 판결Un curieux jugement		
19	채두봉Tchai du-Bon		(여성 인물 아니나 이후 후속 개작 있음)
20	우림Oulin		호수의 신 아내
21	혹보Hoc-Bo		
22	류진Lieu-Jin		
23	치악Tchi-Ac		
24	토끼의 간Le foie du lapin		
25	착한 바보, 마십Maship, la bonne bete	O	마십부인
26	개구쟁이 꼬마L'enfant Polisson		

27	두꺼비의 보은 La reconnaissance d'un crapaud	O	두꺼비를 구하고 아버지를 구한 딸
28	이돌이Li Dory		
29	아이 눈물의 위력La puissance des larmes d'enfant		
30	아미타불A-MI-Ta-Boul		
31	비극적인 수수께끼 Une énigme tragique	O	아랑 설화의 개작-아랑
32	석상의 기억Une statue mémorable	O	돌이된 며느리
33	비밀스러운 도지사Un préfet mysterieux		
34	뛰어난 아이L'enfant terrible	△	사또의 전횡으로 납치당할뻔한 어머니
35	한국의 전설Une légende coréenne		

흥미로운 것은, 서영해의 번역에서 심청과, 춘향을 대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 홍련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이름이 제목으로 사용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고유명사나, 번역 불가능한 표현들을 소리를 살려 표기해 제목으로 쓰는 것은 서영해의 번역 특징으로 제목의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청」은 '심청Sim-Tchum'이고, 「홍련」은 의미를 따서 '붉은 연꽃Nénuphar-Rouge'으로 표기된다. 물론 민담적 성격을 가진 이야기일 경우 군집만이 남아 있고 이름이 주어지지 않는것은 일견 당연하며 이야기 내부에서는 이름이 있다. 그러나 이돌이나 채두봉 등 남성 주인공의 이름은 자신이 만들어냈음 직한 경우에도 제목으로 사용하곤 하는데, 여성 주인공의 이름이 제목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문헌설화를 참조했다면 그 원천 때문일 수도 있고, 호명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눈여겨볼 만하다. 무기명의 여성들로 민담 속 여성들을 묶은 것은 이 때문이다.[33]

물론 여성 인물들이 무기명이라는 것이 비가시화의 의미는 아니다. 앞서 춘

33 사실 설화의 삼분법으로 이 이야기들을 반드시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이 논문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민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장르 개념으로서의 소설 등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향과 심청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 형상들에 비해 서영해의 여성 형상은 훨씬 다채롭다. 춘향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성이며, 로맨스의 대상이다. 반면 심청은 신실한 딸이다. 이 두 유형이 여성 전형의 양극단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알렌이나 게일을 포함한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들의 번역이 그 빈 곳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라면, 서영해의 설화집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 인물들은 비로소 그 사이의 빈 스펙트럼을 채운다. 몇 가지 이야기를 표 안에 위치시켜 보기로 한다.

춘향		3	4			1		심청	5
+fidelité								+sacrifice	

2 1.소중한 독약 2.절개없는 여자 3.우림 4.착한 바보, 마십 5.두꺼비의 보은

왼쪽은 아내가 될 수 있는 인물 형상으로 춘향을 두었으며 오른쪽 끝은 신실한 딸(이 될 수 있는) 인물 형상으로 심청을 두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의미로 부연한다면 아내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절개fidelité를 가진 인물들이다. 반면 딸 영역에 가까운 인물들은 희생sacrifiée되는 딸들이다. 절개와 희생의 기술 패턴은 서영해의 번역 속에서 어느 만큼 일관성있게 포착된다.[34] 일반적으로 '절개'가 있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내의 의미망과 교집합을 크게 가진다. 물론 미혼 여성에게도 보편적 의미에서의 '절개'를 요구하곤 했지만, 이야기 내부에서 여성 형상의 절개 유무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있는 아내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특히 생략이 많거나, 기존 소설의 문법을 덜 따르는 설화의 문법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성들은 절개와 관련된 언어로 표현하지만, 딸의 경우에는 희생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여 재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개 있는 아내와 희생하는 딸이 만들어내는 스펙트럼에, 여성의 형상들을 재배치할 수 있겠다. 딸에서 아내의 방향으로 갈수록 이들은 로맨스적 대상이 되며 이야기 속에서도 '아내가 될 수 있음'이 강조된다. 반면 딸의 방향으

34 fidél하다거나 sacifiée되었다는 등의 담화적 기술을 포착하여 이것을 두가지 대조되는 의미영역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이후 발췌하는 번역 원문은 해당 담화들이 잘 드러나는 곳을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로 가면 이들은 '희생하며 성실함'이 강조되고 로맨스적인 부분이 배제된다.

그러나, 아내의 의미영역에 절개 있음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딸의 의미영역에 희생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그 중간 어디쯤 위치한 여성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뒤섞인 어떠한 인물 형상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 구도는 (낮은) 신분의 질곡(a1), 결연의 장애(b1), 절개의 당위(c1) 등으로 구성되는 춘향적 형상과 (양반) 신분의 압박(a2), 결연의 지연(b2), 희생의 당위(c2) 등으로 구성되는 심청적 형상의 의미 영역들을 재구성하여 각기 다른 형상으로 재건한 구도로도 이해된다. 예를 들어 심청이 a2+b2+c2의 조합이라면, 「두꺼비의 보은」의 주인공은 a2+c2의 조합이고, 「소중한 독약」 주인공은 a2+b3+c1+c2의 조합이라고 보는 식이다.

대표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대상으로 하여 그 면모를 살펴본다. 「우림」은 인간과 수신(水神)의 로맨스를 다룬 이야기로 아내는 결국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떠난다. 춘향에서처럼 신분이 다른 로맨스의 하나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이 이야기에서 여성 형상은 수신이며 또한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로맨스를 종결한다는 차이가 있다.

>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그는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저는 호수의 물고기들의 수호신입니다. 당신의 피리 선율에 매혹되어 오래전 옥황상제께, 당신을 보러 땅으로 오겠다는 기원을 드렸습니다. 옥황상제께서는 제게 보름이 18번 지날 때까지의 기간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수로 돌아가지 않은 채 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런 저를 벌하기 위해 천지신명Maitre de l'Univers께서 재해(가뭄)를 내린 것입니다. 죄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과 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는 몹시 안타깝지만 오늘 밤 호수로 돌아갑니다. 푸른 하늘에 달이 차오르고 미풍이 호수의 잠든 물결을 어루만지면, 호수가에 피리를 가지고 나와 제게 당신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십시오. 아침, 첫 햇살에 이슬이 반짝일 때면, 당신의 부드러운 얼굴을 호수의 잔잔한 물결 위에 비추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해 바라는 것은 이것 뿐입니다.'[35]

「착한 바보, 마십」은 마십굴 전설의 마십이 주인공이지만, 그 아내를 욕심낸 양반에게 아내가 납치되는 이야기이므로 그 아내의 재현 역시 중요하다. 관이 양민의 아내를 욕심내고, 재능(지혜나 꾸준함, 끈기) 등을 갖춘 양민이 이를 바탕으로 아내를 지켜낸다는 내용은 서영해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꾸준히 나타나는 구조이다. 이 이야기 속 아내는 자신을 구하러 올 남편 마십을 기다리며 치성과 기원을 드리는 '절개 있는 아내'라는 점에서는 춘향과, 누군가를 능동적으로 구원하지는 않으며 일종의 희생양처럼 기능한다는 점에서 심청의 형상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마십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이 합쳐져 생기기 어려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그 두 형상과는 구별된다. 아래는 자신에게 고백하는 양반에게 마십의 부인이 쏘아붙이는 대목(1)과 마십이 동굴을 파다가 마침내 부인을 발견한 장면(2)이다.

> (1) 그는 자신이 거의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우 놀랍게도, 젊은 부인은 붉어진 얼굴로 그의 앞에 벌떡 일어섰다. "여기서 나가요 무례한 인간아. 당신이 배운 게 그정도라면 양반 나리들 같은 건 내 남편 발끝에도 못따라가요. 나가. 이 배은망덕한 자야." 그녀는 그를 나무라며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36]

---

35 -《Excusez-moi》 ô excusez-moi! y lut-il. Je suis le poisson gardien du lac. Charmée par vos accords captivants j'avais fait depuis longtemps un vœu de venir vous voir sur la terre. Le Tout Puissant Dieu a daigné m'en accorder la permission seulement pendant dix-huit pleines lu-nes. Or j'ai dépassé ce délai sans retourner au lac. C'est pour me punir que le Maitre de l'Univers envoie sur la terre cette terrible calamité Pour l'amour de la population innocente, pour sauver votre vie et la mienne, je retourne inconsolable ce soir dans le lac. Quand la lune sera pleine dans un ciel azuré et quand le zéphyr folâtre caressera la surface dormante du lac, venez avec votre flûte au bord de l'eau et faites-moi entendre vos accords sublimes. Le matin, quand les rosées brilleront encore au premier rayon du soleil laissez refléter votre doux visage sur les ondes reposantes du lac. C'est le seul vœu que je forme de tout mon cœur.》
서영해, 앞의 책, 112쪽.(이하 쪽수만 표기)

36 Il croyait déjà avoir gagné la partie quand, à sa grande stupéfaction, la jeune

(2) ‘천지신명이시여.’ 긴 여정 끝에 그는, 아내를 납치한 바로 그 양반 집 안뜰로 나왔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가 떡갈나무 그늘 아래에서 천지신명께, 남편 마십이 돌아오기를 엎드려 기원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마십은 아내를 품에 얼싸안고 양반에게 온힘을 다해 소리치며 동굴 안으로 도망쳤다. “배은망덕한 양반! 내가 동굴로 내 아내를 데려간다!”

「소중한 독약」은 희생적 결혼을 결심하는 여동생의 이야기이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남매 중 오빠가 희생하여 가짜 결혼으로 목숨을 버리려 하지만, 실패하여 돈을 마련해준 은인(가짜 결혼의 원 신랑 아버지)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동생이 오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 나병환자인 은인 아들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신실한 딸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결혼을 앞둔, 아내의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으로 변화한다. 물론,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딸 혹은 여동생으로서 가족의 명예를 구하고 그 죄값을 받고자 스스로를 희생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주인공은 희생하는 딸의 형상에 가깝다. 그러나 결혼으로 가족의 잘못을 갚고자 했다는 점과 기대하지 않았던 결말을 맞았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의 신랑을 구원하는 행위가 되었다는 점에서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기능 역시 수행한다. 다음은 아버지를 구했으나 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후회하는 오빠와 동생의 대화를 일부 발췌한 것이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다” 그는 이를 궁금해하던 여동생에

---

femme indignée se dressa devant lui, rouge de colère.–《Sortez d’ici, grossier personnage! Si c’est là toute l’éducation que vous avez reçue, votre espèce seigneuriale ne vaut même pas le pied de mon mari. Hors d’ici, monstre ingrat!》 gronda-t-elle tout en lui montrant du doigt la porte de sortie.(146쪽)

Au bout d’une longue course, il sortit, ô bonté infinie du Juste Ciel! dans le jardin même du Seigneur ravisseur. Là il trouva sa femme prosternée à l’ombre d’un vieux chêne, priant Dieu pour revoir son mari Maship. Celui-ci l’enlaça dans ses bras et s’enfuit par le trou du tunnel tout en criant de toute sa force : –《 Oh! monstre ingrat, j’emmène ma femme par le tunnel!》 (148쪽)

게 모든 비밀을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맹세를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구해준 분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 “오빠.” 생각에 잠겼던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덕분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차례네요. 오빠의 희생에 동참하여 약속을 어긴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내가 그 은인의 아들과 결혼할테니 그에게 이를 알리고 대답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오빠는 격렬히 반대하면서 여동생의 어떤 희생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바탕 싸우고 난 후 결국 동생의 뜻을 받아들였다. 오빠가 떠난 후 동생은 생각했다.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랑하는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한 내 의무이다. 그러나 어떻게 나병 환자와 함께 살아가지? 그건 불가능하다. 신성한 결혼식이 끝나 우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라고 생각하며 그녀는 비밀리에 독약 한 병을 준비했다.[37]

반면 「두꺼비의 보은」은 심청과 유사한 희생하는 딸이다. 복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꺼비에게까지 관대한 마음을 나누어주는 착한 소녀로 재현되는데, 효심이 깊은 딸이다. 심청에서 그랬던 것처럼 복실은 두꺼비뿐 아니라 아버지를 돌보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려 희생양을 자처한다. 이러한 상황까지도

37 -《Je suis heureux d’avoir sauvé notre père, dit-il à sa sœur qui s’inquiétait de tout ce mystère, mais je ne suis plus digne du jour! Car j’ai manqué à ma parole, et surtout j’ai déshonoré le sauveur de mon pere!》《Mon frère! dit la jeune fille toute pensive, grace à vous notre père a été sauvé. A mon tour je veux prendre ma part de votre sacrifice et réparer votre manque de parole. Je veux épouser le fils de notre bienfaiteur. Allez lui annoncer ma décision et revenez avec sa réponse.》 Le frère, protestant de toute sa vigueur, ne voulait a aucun prix sacrifier sa sœur. Cependant, après une vive discussion avec celle-ci, il dut accepter sa decision. Après le depart de son frère, la jeune fille pensa : c’est bien mon devoir de sauver l’honneur de ma famille et de rendre heureux un frère bien-aime. Mais comment peut-on supporter la vie auprès d’un lèpreux! C’est impossible. Aussitôt après la cérémonie sacrée du mariage, quand j’aurai sauvé notre honneur, je me donnerai la mort!》 Aussi prépara-t-elle secrètement un flacon de poison. (32-33쪽)

심청과 매우 유사한데, 심청이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재생과 결연을 통해서 극복했던 것과 다르게, 복실은 두꺼비의 보은을 통해 이를 극복한다. 따라서 스스로 나누었던 환대와 관대에 기반하여 스스로를 구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구원하는 셈이다. 그렇기에, 복슬은 심청과는 다르게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성으로 재현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딸로서 재현된다. (1)은 복슬의 소개, (2)는 희생을 결심하는 복슬, (3)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다.

> (1) 다행스럽게도, 그의 딸 복슬이는 현명하고 효심이 깊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정성스런 손길로 집안일을 해 나갔다. 그래서 저녁에 밭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의 선량한 시골사람(아버지)은 그의 고단한 노동을 잊게 해주는 가족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 (2) 곧 봄이 올 것이었다. 사람들은 무척 걱정하면서 사방으로 젊은 처녀를 찾았다. 어린 복슬도 이 상황을 알았고 희생자에게 막대한 돈을 준다는 것도 알았다. (…) 밤새워 고민하던 어느날, 복슬은 아버지를 구하고 스스로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저 쓸모없는 평범한 소녀일 뿐이지만."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처럼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야말로 오래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 (3)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인인 가엾은 동물(두꺼비)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생된 이 미신이 단지 지네 괴물의 농간이었음을 확실히 알았다.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장중한 의식을 진행하고, 사람들은 어린 소녀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갔다. 아버지는 이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다.[38]

---

38 Heureusement pour lui, la petite Bok-Sury était sage et pleine de piété filiale. Elle assistait de son mieux son père dans son travail et s'occupait du ménage avec un soin délicat. C'est ainsi qu'en rentrant de son champ, le soir, à la maison, notre brave paysan trouvait la joie et le bien-être familial qui lui faisaient oublier aussitôt son dur labeur. (153쪽)
Un jour, après une réflexion de toute une nuit, elle se décida fermement à se

그런데 「절개 없는 여자」라는 이야기는 이와 다르게 다소 이질적이다. 특히 이 이야기는 설화집의 다른 이야기들이 어떤 한국 설화를 수재했는지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이야기를 수재했는지를 추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록과 선택의 당위가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데도 실려 있다. 마치 마십의 아내와 정반대에 위치한 여성상을 재현한 것과 같은 이 이야기는 그러나 절개가 있지도, 희생하지도 않은 여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유표적이다. 다음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남자들이 젊고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 모두 자신의 신성한 사랑에 대해 시끄럽게 떠들며 사랑하는 여자의 지조를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늙은 승려가 그날 젊은이들의 수다를 목격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기사도 정신으로 가득한 확언과 특히 '낭자'를 향한 서글픈 회상을 듣고는 승려가 경멸로 가득 찬 슬픈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가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오만한 젊은이들의 대화를 갑자기 끊었다. "젊은 나리들, 여성의 지조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데, 나리들은 아마 눈곱만큼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젊은이들은 순수하고, 경험도 없고, 순진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 사실(절개없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그의 말에 젊은 남자가 "뭐라고요? 늙은 승려가, 그러니까 여자를 혐오하는 고행자이자 여자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

---

sacrifier pour sauver son père. -《Que suis-je? Rien, sinon une simple fille sans utilité! se disait-elle. Tandis que mon père est un homme si brave et si bon qu'il mérite de vivre longtemps et heureux !》 (157쪽)

Tous les habitants de ce village pleurèrent la mort du pauvre animal, leur bienfaiteur, et comprirent clairement alors que la superstition dont ils étaient victimes n'était que le crime de cette monstrueuse scolopendre. Enfin, on reconduisit, en grande pompe et avec tous les honneurs que l'on doit à un grand heros national, la jeune fille jusque chez son pere qui ne comprenait rien à ce mystère. (160쪽)

게 말해도 됩니까?"라고 말했다.[39]

그런데 서영해의 번역 기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마지막 이야기를 제외하면 절개있는 아내도 희생하는 딸도, 그 중간 어디에 위치하는 여성 형상들 역시 모두 구원하는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두꺼비의 보은」에서도, 「소중한 독약」에서도 아버지를 구하다sauver mon pére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데에 주목했다. 무기명의 여성들은 결국 아버지의 세계를 구하는 주체가 된다. '아버지의 세계'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어려우며, 또한 절개와 희생이라는 가치가 여성을 재현하는 새로운 의미소가 아니라는 점은 어쩌면 한계로 인식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서영해의 탈식민적 여성 형상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다른 가능성을 포착하게 되는 것은 공동체의 구원을 '무기명의 여성'들과 연결하였다는 것 때문이다. 이들은 로맨스의 '대상'이거나 아마도 양반가의 '딸'일 수도 있지만 그 중간 어디쯤 있는 그 무엇도 아닌 여성일 수 있으며, 그 모든 것과 대립되는 여성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존재를 통해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를 기꺼이 구원하는 힘을 가진 형상으로 재현된다.

이것은 서영해가 개인적 삶에서 추구하던 가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운동가로서 서영해가 추구하던 이상적 공동체의 면모는 『어느 한 국인의 삶Autour d'une vie coréenne』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 책은 허구를

39 Jeunes et fiers, chacun parlait bruyamment de son saint amour en vantant la fidélité de celle qu'il aimait. Cependant un vieux bonze, assis sur une énfinence, assistait ce jour-là à ce bavardage de jeunesse. Aux affirmations chevaleresques et surtout aux invocations mélancoliques de ces jeunes gens pour leurs《Dulcinées》, le bonze ne pouvait dissimuler ses sourires tristes pleins de mépris. D'une voix calme et sereine, il interrompit tout à coup la conversation de cette fière jeunesse.—《Mes jeunes seigneurs, vous vous trompez beaucoup sur la fidélité des femmes, mais vous ne vous en apercevez certainement pas! car je sais que, pour la jeunesse, il n'y a pas d'impos-sibilité. La jeunesse est innocente, sans expérience et crédule. C'est ainsi que vous l'êtes sans vous en douter !…》-《 Comment ! vous, un vieux bonze, un ascète misogyne, qui ne devez pas connaître les femmes, pouvez-vous parler ainsi?》 fit un jeune homme.(36쪽)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조선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야기 속 한국은 자유를 억압하는 신분제의 국가이다. 책은,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횡이 부당함을 명시한다. 주인공 박선초는 이에 맞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남기는데 그 마지막에서 '인도주의', '정의', '자유'의 가치를 강조한다.[40] 따라서 서영해가 지향한 공동체는 기존의 조선이 아닌 '다음'의 국가이며 그가 꿈꾸던 모더니티란 '인도주의', '정의', '자유'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비-신분을 지향하는 관점은 민담에 대한 긍정이 되며, 잎선 가치들이 이야기의 번역과 다시쓰기에 내재된다. 실제로, 이후(라고 추정하는) 미출간 육필원고에서 서영해는 『거울, 불행의 원인』에 실린 「채두봉」을 각색하여 공동체를 구원하는 무기명의 「갖바치의 딸」로 다시 쓴다.[41] 그렇다면 서영해가 다시 쓰려던 탈식민적이고 모던한 '다음'의 공동체에 여성'들'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다.

5 결론

서양 선교사들의 번역과 서영해의 번역은 원전에 대한 외국어 화자-도착어에 대한 원어민 화자의 관점과 원전에 대한 원어민 화자-도착어에 대한 외국어 화자의 관점으로 대비되며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 그리고 탈제국주의 혹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으로 대비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선택과 그 형상의 재현과도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

서영해는 프랑스에서 이 저서를 출간하였고, 이 당시 이미 고려통신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외교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직무에는 신문 등의 매체에 한국에 대한 기고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에둘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한국의 문학 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가 남긴 흥미로운 기록이다. 서영해는 따라서 번역의 번역 불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

40 서영해, 김성혜 역, 『어느 한국인의 삶』, 역사공간, 2019. 174쪽.

41 『갖바치의 딸』은 『청구야담』의 「겁구주반노수형」과 『김학공전』 등을 포함하는 혼종적 다시쓰기로 볼 수 있는데 남성 주인공들이 원 텍스트들과는 달리 '갖바치의 딸'이 구원의 주체라는 점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하고 있는 번역가였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어 화자들의 번역이 그 불가능의 영역을 이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채우고 있다면 서영해의 번역은 그것을 일종의 가능성으로 채우고 있다. 물론 그가 재현한 여성 형상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매우 전복적이고 새로운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의 공동체에 여성이 존재하며, 양극으로 대표되는 여성 전형들 사이의 실재들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서영해가 『거울, 불행의 원인』을 포함하여 『갖바치의 딸』 등 다른 번역 기술에서 구현하는 여성 형상은 의미 있는 다시 쓰기를 보여준다. 즉, 서영해가 구현하는 여성 형상은, 횡적으로는 다른 고전 번역과의 관계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규명 가능한 것이며, 종적으로는 서영해의 서사 기술 속에서 통시적으로 규명 가능한 것이다. 후자의 연구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서영해, *Miroir, cause de malheur!*, 새문사, 1977, 1-214쪽.

서영해, 김성혜 역, 『어느 한국인의 삶』, 역사공간, 2019, 174쪽.

이진숙 외 역주, 『판소리계 소설 2: 심청전 흥부전 토끼전』, 박문사, 2017, 1-580쪽.

_____, 『서양인의 한국고전학 선집 2』, 박문사, 2017, 13-16쪽. 100-156쪽.

장정아 외 역주, 『번안소설 1: 춘향전』, 박문사, 2017, 11쪽. 36-140쪽.

_____, 『번안소설 2: 심청전』, 박문사, 2017, 1-228쪽.

Allen, H.N.M.D, Korean Tales, London: G.P. Putnam's Sons, 1889, 1-193쪽.

Hong, Tjyong-ou, Le Bois Sec Refleuri,
(https://gallica.bnf.fr/ark:/12148/bpt6k54364928/f8.image)

The Korea Magazine NO. 9, 1917.

단행본

육영수,『근대한국학의 뿌리와 갈래』, 돌베개, 2024, 55-104쪽.
정상천,『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산지니, 2019, 7쪽.
정하영,『춘향전의 탐구』, 집문당, 2005, 71쪽.
모리스 쿠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70쪽.
메리 루이스 프랫, 김남혁 역,『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2015, 32-36쪽, 84-131쪽.

논문

김남혁,「제국주의와 여행서사—메리 루이스 프랫의 연구를 중심으로—」,『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131-161쪽.
권순긍·한재표·이상현,「『게일 문서(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심청전〉, 〈토생전〉 영역본의 발굴과 의의」,『고소설연구』 제30호, 한국고소설학회, 2010, 419-494쪽.
배민재,「『한국서지』·「언더우드 목록」으로 살펴본 19세기 말~20세기 초 서구 한국학의 학술 지형」,『한국문화』 제98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2, 369-398쪽.
서혜은,「알렌의 경판본 소설의 번안 양상과 그 독자의식」,『한국학논집』 제86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101-146쪽.
이상현,「〈춘향전〉 소설어의 재편과정과 번역-게일(James Scarth Gale) 〈춘향전〉 영역본(1917) 출현과 그 의미-」,『고소설연구』 제30호, 한국고소설학회, 2010, 375-418쪽.
_____,「묻혀진 〈심청전〉 정전화의 계보-알렌(H. N. Allen), 호소이(細井肇), 게일(J. S. Gale) 〈심청전〉 번역본의 연대기」,『고소설연구』 제32호, 한국고소설학회, 2011, 405-456쪽.
_____,「게일의 한국고소설 번역과 그 통국가적 맥락-〈게일 유고〉(Gale, James Scarth Papers) 소재 고소설관련 자료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에 관하여-」, 비교한국학 제21권 1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11-54쪽.
_____,「한국 근대문학의 역사적 현장과 개신교선교사」,『민족문학사연구』 제7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95-130쪽.
이창희,「〈춘향전〉 영역본 연구-춘향의 형상화 방식과 번역 전략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99호, 민족어문학회, 2023, 199-230쪽.
장정아, 「'민족지'로서의 고소설 번역본과 시선의 문제-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 Le Bois sec refleuri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제109호, 한국불어불문학회, 2017, 167-193쪽.
_____, 「외국문학텍스트로서 고소설 번역본 연구(I)-불역본 『춘향전』 Printemps parfumé에 나타나는 완벽한 '춘향'의 형상과 그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48호, 열상고전연구회, 2015, 379-411쪽.
장정아·이상현·이은령 「홍종우의 불역본 『심청전』Le Bois sec refleuri와 볼테르 그리고 19세기 말 프랑스문단의 문화생태」, 『한국프랑스학논집』 제95호, 한국프랑스학회, 2016, 83-111쪽.
최기숙, 「'효녀 심청'의 서사적 탄생과 도덕적 딜레마-감성적 포용과 전향의 맥락」, 『고소설연구』 제35호, 한국고소설학회, 2013, 65-103쪽.
최진실, 「개화기 선교사 게일의 『춘향전』 재번역 이유와 특성: 원전 선택의 관점에서」, 『번역학연구』 제23권 3호, 한국번역학회, 2022, 9-33쪽.
황인순, 「〈한국서지〉 담화 구조와 프레임 연구」, 『韓國古典硏究』 제53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61-396쪽.
_____, 「근대 프랑스어 설화집 기술 비교 연구-'심청'의 번역과 개작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제42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01-332쪽.
_____, 「1900년대 전후 외국어 설화집의 연구 방법론 구축」, 『리터러시 연구』 제10권 4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665-702쪽.
_____, 「1900년대 외국어 기술 설화집의 지형도 연구-다시쓰기를 통해 번역된 한국」, 『韓國古典硏究』 제61호, 한국고전연구학회, 2023, 275-324쪽.

Abstract

A Study on Female Figures in Seo Young-hae's *Miroir, Cause de Malheur!*
: A Comparison with Early 20th-Century Translated Classical Korean Narratives

Hwang, In soon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Korean classical narratives translated into Western languages in the early 20th century, categorizing them based on two perspectives of the translator: first, translators who are foreign-language speakers of the narrative's source language but nativ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and second, translators who are native speakers of the narrative's source language but foreign-language speakers of the target language. The first category includes translations by figures such as Allen, Gale, and other Western Christian missionaries, while the second includes translations by Seo Young-hae.

The focus on Seo Young-hae's translations arises from the uniqueness of his approach, which intentionally avoids the travelogue or museum-like perspectives of the conqueror, aiming instead to counter imperialist and colonialist viewpoints. Given the historical context, such a translation approach is a rare object of study. In contrast, Western translators often approach Korean literature or 'Koreanity' from a perspective that treats it as a territorialized object. Therefore, examining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se translations becomes especially significant in light of these implicit dynamics.

The classical female figures portrayed can be categorized into onymous characters, such as Chunhyang and Simcheong, and anonymous women. Notably, Seo Young-hae's translations is marked as it include the latter. Furthermore, he goes beyond the polarized female archetypes represented by Chunhyang and Simcheong, presenting a broader spectrum of female figures. His translation aims to represent these diverse depictions of women as a potential foundation for a future communal identity.

Key words: Korean classical narratives in translation, Seo Young-hae, Chunhyang, Simcheong, Female figures in translated Korean narratives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5.
게재확정 / 2024.12.08.